

# 이란, 石油할인판매 실시

- 石油收入 증대시키기 위해 -

- 大韓石油協會 弘報室 -

이란은 自國産 原油의 판매를 촉진시키기 위한 적극적인 시도로서 적어도 네가지 이상의 유형으로 할인판매를 실시하고 있다.

이에 대해 몇몇 石油貿易業者들은 左衝右突하는 이란의 攻勢라고 표현하고 있으나, 한편 이란內 테헤란駐在 願買者들은 「이란의 自救的 노력」에 보다 가깝다고 말한다.

이란은 인접 이라크와의 전쟁에 있어서 또다른 공세를 준비하고 있는 관계로 자금부족을 겪고 있음이 명백하다. 이란이 지금까지 4년반에 걸친 전쟁기간 동안 줄곧 자금부족을 겪어온 터이지만 현재의 상황은 매우 절박하다고 관측통은 말하고 있다.

石油輸出國機構(OPEC)에 의하여 할당된 이란의 石油生産上限線은 230만b/d인데, 이량만큼 생산된 적은 거의 없으며 대부분 産油쿼터량에 훨씬 못미치는 수준이었다. 특히 가장 최근의 예로서 금년 1월 초에는 쿼터량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였다.

## 자금부족 곧 免할 듯

그러나 이란의 이러한 적극적인 판매전략이 고객들에게 먹혀들여진다면 자금부족의 고민은 곧 일소될 수 있을 것이다. 이미 지난 4월의 생산량은 3월의 160만 내지 180만b/d에서 230만b/d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보여진다고 테헤란의 어느 외국회사는 말한다.

이란의 日本교역파트너중의 한 경영자에 의하면

이란에서 국제시장을 담당하고 있는 國營이란石油公社(NIOC)는 지금 철저할 정도로 OPEC 체제의 테두리를 벗어나서 활동하고 있다 한다. 또한 그는 NIOC가 販賣價格할인 외에도 과거의 생산미달량을 補填하고자 능력이 닿는 한 많이 팔려고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란은 공식적으로는 지난 1월 합의한 OPEC價格協定과 작년 10월에 설정된 産油쿼터량을 준수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기는 하다. 따라서 이란은 공식가격 이하의 石油販賣을 전쟁위협지역인 자신의 항구를 사용하는 데에서 초래되는 고객의 추가선적 비용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것이라 돌리고 있다. 최근의 現物市場에서는 공식가격인 배럴당 28.05달러(이란輕質油) 및 27.35달러(이란重質油)에서 각각 80내지 90센트의 폭으로 할인 판매되고 있다.

이란石油省의 대변인은 생산량증대에 대하여 어느 한달 쿼터량을 초과할지는 모르나 分期別로 볼 때 生産上限線을 지키고 있다고 말한다. 사실 OPEC의 쿼터제한은 일일 생산량의 분기별 평균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

그러한 가운데에서도 대변인은 이란이 대대적인 판매에 착수하였음을 시인하였다. 현재 NIOC의 販賣·輸出部長을 팀장으로 하여 4명이 런던에 머물면서 西歐무역업자들의 관심을 고취시키고 있으며, 이달 初 또 다른 팀이 日本을 방문할 것으로 보인다. 그들은 日本에 대하여 의무량을 없애고 새로운 物量을 정하되, 가격은 每선적분마다 협상할 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 原油契約을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 판매촉진을 위한 노력

이에 대하여 日本의 Mitsui, C. Itoh 그리고 Marubeni 貿易商社들은 특별한 계약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히며, 이란의 조건이 매력적인 것이기는 하지만 제시한 物量(30만~50만b/d)이 너무 많아 실현성이 없다고 말한다. 同회사의 간부에 의하면 2/4분기 및 3/4분기의 原油需要弱勢를 예상할 때, 이란이 제시한 물량의 절반이상도 受容할 수 없다고 한다.

이란은 판매를 촉진하기 위한 또 다른 방법으로 석유入札에 비교적 낮은 가격으로 참가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방법은 파키스탄과 방글라데시에서 있었던 入札에서의 前例가 있어 새로운 전략은 아니라고 대변인은 말한다. 이란이 日本에서 성공을 거두지는 못하였으나, 최근의 原油入札에서

는 OPEC 공식가격보다 훨씬 낮은 應札價가 등장하여 관심을 모으고 있다. 지난 4월 印度에서 있었던 입찰에서 이란은 Phibro社를 통하여 참가하여 배럴당 26.48달러(이란輕質油)를 제시 落札되어 30만톤을 공급하게 되었다. 그러나 선적항인 Sirri島로 부티의 船舶費用을 除하면 實質供給價格은 배럴당 26.10달러에 불과하여 公式價格 28달러와 비교된다. 이번 입찰은 적어도 다른 하나의 회사를 통하여 참가한 시험이었다고 참여회사는 말한다. 그러한 가운데에서도 NIOC는 최근에 落札價格이 너무 낮은 점에 대하여 우려하고 있다고 전해진다. 印度의 30만톤 입찰에 참여하였던 어느 무역업자가 말하기를 「그들은 한가지 교훈을 배웠다. 그들은 직접 입찰에 참가하였다」한다.

이 외에 NIOC는 올봄 몇몇 西歐精油業者들과 精製產品의 시장가격에서 船舶費用과 精製費를 控除한 가격으로 原油販賣契約를 체결하였다. \*

## □ 石油市場動向 □

### 現物시장 油價 계속 하락

국제석유시장에서 원유시세가 다시 붕괴됐다고 지난 5월 8일 日本經濟新聞이 보도했다. 이는 수요부진 가운데 일부 산유국들이 증산에 나서 공급과잉이 더욱 심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런던을 중심으로한 유럽의 스파트 시장에서는 8일 북해원유의 대표 유종인 브렌트가 1배럴(1백59kℓ)당 26.20달러까지 하락했고 아라비안 라이트도 27달러로 공시판매가격을 1달러 가까이 하락했다.

그럼에도 시장의 약세전망은 사라지지 않아 OPEC(석유수출국기구)에 대한 가격인하압력이 다시 고조되고 있다.

가격인하가 가장 뚜렷한 것은 브렌트油, 2월말에는 한파와 蘇聯의 급격한 석유수출감소를 반영하여 배럴당 29달러까지 앙등했으나 현재는 26.20달러(6월 인도분)까지 약 3달러(약 10%)나 급락했다.

또 中東원유의 대표유종인 아라비안라이트의 가격도 브렌트만큼 큰폭은 아니지만 급속히 떨어지고 있다. 스파트시세는 3월 하순부터 4월 하순에 걸쳐 공시판매가격(배럴당 28달러)으로 거래됐으나 7월에는 27~27.10달러로 거래되고 있다.

사우디아라비아의 생산량은 日産 3백20만배럴 정도로 OPEC국별 할당량한도인 4백35만3천배럴을 크게

회회하고 있지만 나이지리아나 아랍에미리트연합등 기타 OPEC 국가들이 증산에 나서고 있다.

특히 나이지리아는 하루 1백70만배럴로 할당량도 1백35만~1백45만배럴을 크게 초과하고 있다.

이란도 생산량은 할당량한도인 하루 2백30만배럴을 회회하고 있지만 수출량은 1백5만~1백20만배럴 정도까지 회복됐다고 보여진다.

이것은 이란측이 스파트시장에 낮은 값으로 내놓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이란뿐 아니라 두바이나 오만등의 중동원유도 모두 싼값에 출하되고 있어 「현재 공시판매 가격으로 팔리고 있는 것은 사우디 아라비아」 뿐이라고 지적하는 상사도 있다.

싱가포르시장에서도 4월 하순부터 가격하락이 뚜렷하여 아라비안 라이트는 7일 배럴당 27달러 이하로 하락했고 인도네시아의 미나스원유도 약세를 보였다.

OPEC는 4월 23일에 시장감시위원회, 30일 5월 1일에 각료집행위원회를 잇달아 열었으나 효과적인 시황대책을 세우지 못했다. 유럽의 트레이더나 日本상사간에는 「OPEC가 올 여름까지 다시 원유가격을 인하하지 않을까」하는 견해가 나오고 있다.